다산포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가을이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이 "서리 맞은 잎새가 이월 꽃보다 더 붉다(霜葉紅於二月花)"고 노래한 바와 같이 온 천지가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그런데 맑고 더 높아야 할 이 찬란한 계절, 가을 하늘이 잿빛으로 얼룩져 있다. 2016년 11월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가을답지 못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184위로 꼴찌에서 4번째라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수준인 1.19명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750년에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관의 변화에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의 38,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1.9%였다고 한다. 약 절반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이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출산은 백해무익이다', '출산은 도박이다', '아이 낳으라는 건 욕이다'라는 말까지 나돈다. 더 끔찍한 유행어는 '맘충'이다. 이는 엄마를 뜻하는 '맘'과 벌레를 뜻하는 '충(?)'의 합성어로,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게 한 서글픈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또 하나,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 드리는 것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우리를 몹시 슬프게 한다. 인간 위에 법이 있는가, 법 위에 인간이 있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바일 것이다.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박관천 행정관은 청와대의 권력지형에 대하여 "최순실 씨가 1위이고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때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의 진실성이 확인되고 있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는 "최순실 씨는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책상 위에는 항상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가 놓여 있었다"라 말했다고 하니 최 씨의 국정 개입 정도를 알 만하다. 11월 20일에 발표된 검찰의 공소장에도 47건의 청와대 기밀 자료가 최 씨에게 유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쯤 되면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도대체 최순실은 무엇인가? 그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마력을 가지고 박대통령을 조종한 것일까? 최순실이 대단한 것인지, 박대통령이 좀 모자란 것인지….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저지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리가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막장 한류 드라마'라 비웃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과 9천 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5%를 밑도는 지지율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얼 믿고 있는 것일까? 무속인, 승려, 목사를 거친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 일가와의 끈질긴 인연이 연출한 박근혜 정권의 처참한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을은 아름답기에 짧은 것이지만 이번 가을은 유난히 짧아서 눈 한 번 맞춰보지 못하고 훌쩍 떠나버렸다.

교단에서

여지(餘地)

김 진 구
우산중학교 교감

독도지킴이 학교로 선정되어 달포 전에 독도를 다녀왔다. 전국에서 온 교원, 학생이 함께한 독도 탐방이었는데 많은 깨우침을 준 일정이었다. 우리 땅 독도라는 한 가지 지향점 때문인지 승선한 모든 분들이 진지해 보였다. 푸른 동해 저 멀리 수 천년 조국의 땅으로 서있는 돌섬. 상당한 속력의 유람선으로도 울릉도에서 1시간 30분가량 물살을 갈라야 다다를 수가 있었기에 목선에 노를 저어 독도를 지킨 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분들의 영혼인 듯 늦가을 석양을 배경으로 해맑은 해국(海菊)이 바위틈 경사면을 따라 피어오르고 있었다.

동승한 300여 일행들의 또 한 가지 관심사는 과연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느냐였는데 다행이 동해의 용왕은 우리의 입도를 허락하였다. 모두 태극기를 흔들고 플래카드를 펼쳐 기념사진을 찍으며 들떠 있었다. 몇 장의 사진을 학교 동료들에게 보냈더니 3대가 덕을 쌓아야 발을 디딜 수가 있다면서 축하해 주었다. 우리보다 하루 전에 갔던 분들은 독도에 접안하지 못하고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하루 다음날 갔던 분들은 배가 도중에 회항하기도 했다. 아쉬워서 낭패스런 표정이 있는가 하면, 좋은 날 택일하여 다시 오겠다는 다짐의 모습도 있었다.

백두산에 갔을 때도 날씨가 좋아 천지와 장백의 광활한 장관을 시리도록 볼 수 있었다. 천지의 맑은 풍경을 본 관광객들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워낙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천지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그룹은 누가 날짜를 잡았냐는 등 내내 투덜거리다가 내려가고, 어떤 모임은 안개에 덮인 천지를 상상하면서 안개 덕분에 다시 한번 와야겠다면서 자연의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려간다는 것이다. 독도나 백두산 모두 내가 정한 날짜는 아니지만 조상의 공덕까지 들먹이며 축하해 주는 빈말이 그래도 싫지는 않았다.

산악회에서 산행을 하는데 한 분이 비가 조금씩 내리자 우의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투덜거렸다. 산 정상에서는 비가 그치고 안개가 끼자 경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다. 오후 하산 무렵에는 햇볕이 쨍쨍하자 이번에는 선크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신경질을 냈다. 생각해 보자. 꽉 막힌 마음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여지(餘地)란 말이 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자투리땅, 남은 공간이다. 어떤 분은 철학적으로 "실천의 강제, 논리의 강제, 이론의 강제 등이 잠시 유보된 빈자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시간과 감정과 이권이 극단으로 부딪치는 이 시대에는 여지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반대나 거절을 할 때도 여지가 있게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고양이가 쥐에게 물린 경우에도 여지가 없을 때이다.

어떤 현황을 두고 우리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판단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긍정의 힘은 여지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부정의 감정은 여지를 없앤다. 학교에서 많은 공문을 부서별로 분류하다 보면 간혹 어느 부서의 일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이때 어떤 분은 여지없이 오리물 털듯이 털어버리는가 하면, 여지가 있는 분은 자기 부서 일이 아닌지 알면서도 일단 그 공문을 받아간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와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자기부서의 일이 아님을 말한다. 공문 분류에 대한 자책과 함께 전자의 경우 서운한 마음이 들고, 후자는 더없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똑같이 일을 맡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여지의 여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지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탈인 경우도 있다. 정치인이나 주요 지위에 있던 분들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물러나면서 무슨 '마중물'이 되겠다며 여지를 넉넉히 남겨둔다.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물'이 되는 게 본인이나 단체나 국가에 이로운데 희생양처럼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마중물은 가장 깨끗해야 한다. 퇴물을 마중물로 쓰면 깨끗한 펌프 샘 오염된다. 요즘 나라 모습도 여지없이 정리되어야할 것 같다. 계모임도 이렇게 했으면 진즉 깨졌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더불어 상생, 광주의 성장

김 종 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자의 '산목'편에 나오는 빈 배(虛舟)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이 배로 강을 건너는데 상류에서 빈 배 하나가 떠내려와서 자기 배에 부딪치면 어느 누구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빈 배가 아니고 사람이 타고 있으면 갈등과 심한 다툼의 원인이 된다. 배에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 마음이 변화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역이 침해 당했다고 여기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한다는 것은 생각의 편협성을 드러내고 갈등의 단초가 된다. 상생의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배타적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과거 시·도간 상생보다는 경쟁과 갈등으로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행정구역 단위로 단절되어 주민불편을 초래 한 적이 있었다. 지역간 경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관점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상생과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호남권행정협의회에서는 광주, 전북, 전남의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시·도간 인사교류,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2018년 전라도 천년을 기념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손을 맞잡고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는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도시의 크고 작음을 떠나 동등한 자격과 지위로 참여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성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63개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상생협력과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했고,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 운영 등 내실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24개 협력과제를 발굴, 8개 과제는 완료하고 16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광주전남연구원 개원)과 2015하계 U대회와 2015 국제농업박람회를 상호 지원·협력하여 성공 개최로 이끌어 냈다. 광주·전남 갤러리를 서울 인사동에 공동 개관하여 수도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예향 남도의 우수한 미술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인 제2남도학숙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어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발표문을 통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양시·도의 노력을 재천명했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시·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공동 논의하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 소재 전남 도유재산 승계와 같은 문제는 관계 법령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도 담당부서 간 소통과 협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밝힌다.

이렇듯 상생은 양보와 배려를 기본으로 하기에 지역간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자치단체간 상생은 서로의 꿈을 키우는 동반성장의 힘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보존된다"고 했다. 결국, 더불어 상생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전략이다.

社 說

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 민심이 용서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은 못 믿겠고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믿겠다'는 참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수사를 통해 다 밝히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

특히 검찰이 최순실 국정 농단 범죄 혐의 전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시간 끌기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박 대통령의 변호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소장에)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법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언뜻 보면 배수진 같지만 탄핵 절차를 밟더라도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는 속셈이 읽혀진다.

이제 박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담화에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했지 않았던가.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여러 범죄를 공모·지시·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은 99%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파렴치한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에서도 퇴진과 탄핵은 불가피하다. 청와대의 의도는 검찰에서 방어에 실패하자 다시 특검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논쟁을 하며 장기간 버티겠다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무리수는 촛불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주말에도 촛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 같다.

김기춘·우병우 의혹도 낱낱이 밝혀내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가 최순실 특검에 이어 국조특위 증인 채택까지 합의한 만큼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특위 간사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8대 그룹 총수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또한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21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조특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달려 있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비선과 공적 라인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를 하면서 두 사람을 거론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하나도 남김 없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민주 대성회

"…도청 앞 분수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제도언론의 허위를 뚫고 솟구쳐 진실을 드러내는 대중여론의 분수대이자 민주화 운동의 분출구가 되고 있었다."

광주 오월 민중항쟁을 기록한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펴냄)에서는 당시 도청 앞 분수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1980년 5월 14일, 대학생들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빽빽이 둘러앉아 '전남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진행한다. 시국 성토 선언문이 낭독되고 시민들의 즉흥 연설이 이어졌다. 이때 대성회를 도청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은 두고두고 '오월 광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

16일에는 대성회 후 횃불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대성회에는 5만여 명이 운집했다. 14~16일 사흘간 진행된 대성회는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광주 지역 학생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였다. 하지만 신군부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이후 총칼로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짓누르려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이제 누구나 아는 바다.

지난 19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분수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열렸다. 5·18 이후 36년 만에 '민주대성회'가 재현된 것이다. 분수대에 70여 개의 횃불이 불타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10만 명(경찰 추산 1만9000명)으로 파악했다.

36년 전과 후, 한국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는 얼마나 나아갔는가? 얼마 전 한 서울 친구가 "왜 요즘 광주가 조용하냐?"고 물었다. 서울에 비해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촛불 시위가 잠잠하다는 물음이었다. 하지만 이번 '민주대성회'는 광주의 열기가 높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검찰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억지 주장과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한 국회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라며 전국적인 촛불 시위의 의미마저 폄하했다.

촛불은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눈·귀를 막은 듯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자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그 위태로움을 모르는 것 같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